

# 새 지폐 발행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 진행

1천원권은 2007년도부터 발행, 지폐기 산업계 큰 시장피자 예상돼

**■ 새화폐 추진 일정**

2005년 8월중 정부승인 및 금융통화위원회 의결(도안확정)	9월중 조폐공사 새은행권 제조시설 준비	11월중 새은행권 제조 시작	2006년 상반기 5000원권 발행 및 유통	2007년 상반기 1만원권, 1000원권 발행 및 유통 화폐발행 후 신권 구권 교환 /ATM, CD 자동판매기 교체 혹은 정비(반가량 추정)
--	-----------------------------------	-----------------------	--------------------------------	---

**■ 지폐크기 어떻게 변하나 (단위: mm)**

달려

1000원권: 보라색 → 청색 (가로: 151mm → 136mm, 세로: 76mm → 69mm)

5000원권: 황갈색 → 적황색 (가로: 150mm → 142mm, 세로: 76mm → 69mm)

1만원권: 녹색 → 녹색 (가로: 161mm → 148mm, 세로: 76mm → 69mm)

**■ 새화폐에 들어가는 첨단위조방지장치**

- 5000원**: 요판 창상 손으로 만져보면 우뚝우뚝하며 기울어보면 숨겨진 문자나 문양이 나타난다
- 50유로**: 홀로그램 모양과 색상이 변하는 얇은 필름(은박장치)을 붙인것으로 보는 각도에 따라 그림이 사람이니 건물, 숫자로 변한다
- 광각변영크**: 보는 각도에 따라 빨간색이나 검은색으로 변한다

자료: 한국은행

## 새 지폐 발행, 어떻게 이루어 지나

위변조 방지 기능을 강화한 새로운 디자인의 5천원권이 내년 상반기중 발행된다. 또 1만원권과 1천원권은 이보다 1년 늦은 2007년 상반기에 발행될 예정이다.

새 지폐 발행 이후 신권과 구권은 함께 통용되며 언제 어디서나 무제한·무기명으로 교환 가능하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4월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급증하는 위조지폐 문제의 시급성을 감안, 5천원권을 가장 먼저 발행하는 형식으로 새 은행권을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5천원권은 위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다 현금 자동입출금기와 자동판매기 등에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폐식별기의 교체가 불필요한 점을 감안, 조기에 발행키로 했다.

또 5천원권은 총 발행물량이 1억8천만장이어서 준비기간이 짧은 점도 고려됐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1만원권과 1천원권은 총 발행물량이 약 30억장에 달해 준비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지폐식별기 교체에도 준비기간이 필요해 2007년 상반기 중에 도입키로 했다.

새 은행권의 규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가로 147.8mm 세로 71.3mm) 수준으로 축소하고 도안은 밝고 화려한 색상을 사용하며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 예술적이고 현대적인 세련미를 추구하기로 했다.

1만원권의 경우 현재 규격이 가로 161.0mm, 세로 76mm이지만 새 은행권은 길이와 폭이 각각 13mm, 7mm 축소돼 가로 148mm, 세로 69mm로 줄어든다.

권종별로는 세로길이는 고정하되 가로길이만 각각 6mm 다르게 한 형태가 된다.

색상은 1만원권의 경우 현재와 같은 녹색계열로 유지하

고 5천원권은 황갈색에서 적황색으로, 1천원권은 보라색에서 청색으로 기조색상을 변경, 권종간 식별력을 높이기로 했다.

은행권의 유통수명을 연장하고 촉감 개선을 위해 면(綿)소재인 용지품질을 개선키로 했다. 그러나 도안인물은 현재의 세종대왕(1만원권), 율곡 이이(5천원권), 퇴계 이황(1천원권)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이는 새 은행권 도입일정이 촉박한 상황에서 도안인물의 교체를 추진할 경우 각 이해단체간에 불필요한 논쟁이 야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 은행권은 위변조 방지를 위해 스캐너와 컬러프린터에 의한 위조가 불가능하도록 보는 각도에 따라 모양과 색상이 변하는 홀로그램 장치와 광가변잉크, 비스듬히 기울여 보면 숨은 그림이 나타나는 요판잠상 인쇄기법 등 모두 7가지의 첨단 기능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1천원권은 일부 최첨단 장치의 적용을 생략키로 했다.

은행권 교체에 따른 비용은 은행권 제조에 1천900억원 CD·ATM기 교체 2천200억원 자동판매기 교체 580억원 등 모두 4천680억원의 비용이 예상되지만 CD·ATM기와 자판기의 수명이 5년이기 때문에 전체 비용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한은은 내다봤다.

새 은행권은 한은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5월중 정부의 승인을 얻어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제조에 들어간다.

한은은 현재 새 은행권의 도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기본도안은 금통위 의결 후 공개할 예정이다. 새 은행권은 한국조폐공사와 협력해 도안 시안을 마련하고 화폐도안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금통위 보고 후 정부 승인에 이어 금통위 의결의 절차를 거쳐 제조에 들어간다.

새 은행권의 대량 제조가 시작되면 새 은행권 발행일자를 확정, 발행공고를 할 예정이다.

한은은 "98년 이후 위폐발견 장수가 연평균 50%씩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의 지폐는 83년 현행 기본 골격이

만들어진 이래 20년 이상 큰 변화가 없었고 규격이 너무 커 보관에 불편하고 현대적 감각에도 떨어진다"면서 "외국의 경우 위폐 방지를 위해 6~7년 주기로 도안을 변경하고 있어 첨단 위변조 방지장치를 갖춘 새 은행권을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 자판기 산업계에 미칠 파장 및 대책

새 지폐의 발행 계획으로 인해 자판기 산업계도 일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지폐의 규격자체를 줄이고 도안까지 변경하는 완전 새 지폐가 발행이 되기 때문에 현 통용권에 맞게 개발 설계된 지폐식별기는 대대적인 변경이 불가피해 진다.

현재 관련 업체에서는 기술 대응의 범주를 분주하게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나, 대체적인 의견은 지폐식별기 자체를 전면 교체하지 않고서는 새 지폐 대응이 힘든 쪽으로 집약이 되고 있다.

지폐의 규격자체가 바뀌어 기구 쪽 역시 이에 맞게 보완을 해야 하기 때문에 톱 교체 정도의 프로그램 보완만 가지고는 대응이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경우 문제는 심각해진다. 자판기 분야에 영향을 미칠 1천원권의 발행이 2007년도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시장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

단계적으로 신권이 유통이 되어 구권을 완전 대체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어느 시점에서는 신형 지폐식별기로 교체를 해야 한다. 전국으로 치면 수십만 대에 이르는 자판기(40~50만대 추정)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교체비용을 대당 20만원으로 잡는다고 해도 40만대로 치면 800억이다.

이같은 막대한 교체비용의 발생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사업적인 기회일 수가 있다. 하지만 문제는 결코 간단치가 않다. 우선 교체비용의 문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국가에서의 통화정책 변경은 반대한다고 해서 번복될 일이 아니다. 지폐 사이즈를 축소하는 일이 과연 꼭 필요한 선택이냐 하는 반대의 목소리도 높지만 한국은행

일본의 경우 새 지폐의 발행이 시장을 활성화하는 계기로 작용했음에 미루어 볼 때 현재의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다. 분명한 것은 지폐식별기 교체에 따른 자판기 시장의 경기부양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점이다.

에서 이를 반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문제는 새 지폐에 맞는 지폐식별기 교체비용을 운영자들이 군말 없이 감수하겠느냐 하는 부분이다. 한국은행에서도 입장을 분명히 한바 있지만, 자판기 지폐식별기 교체비용은 자판기 운영자가 물어야 한다. 하지만 운영자들이 교체비용 부담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속단하기는 힘들다. 이 보다는 오히려 불만의 목소리가 엄청나게 커 자판기 업체와의 깊은 갈등을 초래할 확률이 높다. 국가 발전정책의 변화로 인해 운영자 부담으로 지폐식별기를 교체하는 것에 대한 반감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가 과제로 남는다. 결국 산업계는 운영자들을 잘 무마하고 설득해야 함은 물론 교체비용에 있어서도 최소화를 해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두 번째로 걱정이 되는 문제는 자판기 운영상의 혼란과 매출 문제이다. 신규권의 일정기간 동시 유통은 자판기 운영의 불편함을 크게 가중시킬 수 있다.

현재로서는 자판기의 대응은 신권, 구권 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규권을 동시 유통하는 지폐식별기 개발은 기술적으로 힘들고, 설사된다 해도 제조원가 부담이 무척 클 것으로 보인다.

결국 신권이 완전 유통이 되기 전까지는 1천원 지폐식별기는 반쪽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게 된다. 이같은 요인은 자판기 대상에도 영향을 끼쳐 수익성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자판기 판매시장에 있어서도 끼칠 영향이 우려스럽다. 앞으로 신권이 나오게 되면 무용지물하게 된 기존 지폐식별기 문제를 들어 자판기 구입을 망설이게 되는 상황도 많아 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판매업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구매자가 만족할만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판매를 성사시키기 힘들다. 결국 판매자 부담으로 차후 지폐식별기를 교체해주시기로 하고, 판매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 질 것이다.

새 지폐의 발행은 이처럼 보는 각도에 따라 부정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새 지폐의 발행이 이미 '엎질러진 물' 처럼 불가피한 상황이 된 마당에서 산업계는 현명하게 이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계에 미칠 이해득실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새 지폐 발행을 역으로 산업 활성화의 계기를 삼을 수 있는 묘책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새 지폐의 발행이 시장을 활성화하는 계기로 작용했음에 미루어 볼 때 현재의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다. 분명한 것은 지폐식별기 교체에 따른 자판기 시장의 경기부양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점이다.

관련 기술업체에서는 앞으로의 신권에 맞는 지폐식별기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년여의 시간은 결코 충분한 시간이 아니다.

심혈의 기술개발을 통해 새 지폐에 아무 문제없이 대응할 지폐식별기를 개발하는데 기술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며, 협회에서는 관련업체들이 기술개발에 애로점을 겪지 않도록 한국은행, 조폐공사 등 발권당국과 원활한 기술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과연 산업계가 신지폐 발행이라는 변화에 얼마나 잘 대응할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 득실(得失)을 달리하게 될 것이다.